

장기기증 캠페인 대학생들 '호응'

생명나눔회, 14개 대학서 545명 서약

24일 오후 서울여자간호전문대. 축제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교정 한 켠에 마련된 장기기증 캠페인 서명대에 학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다.

"죽으면 없어질 몸, 다른 사람을 위해 쓰면 좋잖아요." 생전 골수기증과 뇌사시 장기기증에 서약한 한진주(간호과 3년) 학생은 간단하지만 장기기증에 대한 도전을 뚜렷했다. 친구인 민경은 학생은 화장유언에 서약했다. 한 무리의 학생들은 서명대 앞을 지나 차다 불교학생회 친구들에게 캠페인 취지를 듣고는 주저없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 학교 불교학생회 회장 강민정 학생(간호과 2년)은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캠페인에 동참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학교

화장유언도 3천229명

에서도 했는데 우리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 더구나 불교계에서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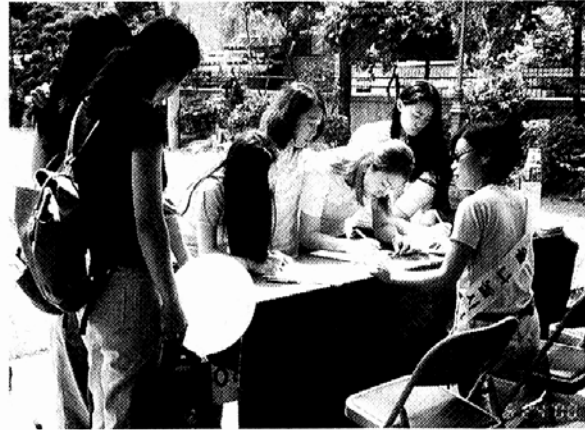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가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역 14개 대학에서 벌인 '생명나눔캠페인'은 각 대학 불교학생회의 도움으로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이 좋은 반응을 얻음으로써 대학에서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확산은 물론 불교의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로 마련했다.

캠페인을 벌인 대학은 동국대를 비롯해 고려대 서울대 건국대 한양대 공운대 서울산업대 방송대 경원대 외국어대 시립대 세종대

서명대 서울여자간호전문대 등이며, 각각 221명, 장기 205명, 시신 97명, 신장 4명, 골수 18명 등 장기기증만도 545명, 화장유언서약은 3,229명에 달했고 212명이 헌혈증서를 기증하기도 했다.

이중 한양대는 모두 120여명이 각각, 장기, 시신, 골수를 기증하는 등 가장 높은 장기기증률을 보였으며, 서울산업대에서는 장기기증 65명, 화장서약 517명 등 모두 600여명의 학생들이 동참해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 일반 불자들을 대상으로 벌였던 캠페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전에 이뤄지는 신장과 골수기증자도 다수 나오면서 캠페인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특히 서울산업대에서는 '다물'이라는 기독교 학생 중심의 종교



서울여자간호전문대 캠페인에서는 '예비 간호사'들이 적극 동참해 '생명나눔'의 뜻을 나누었다.

연구회 동아리가 캠페인 홍보를 맡아 적극 나섰고, 외국어대에서는 불자교수인 송유지 교수가 학생들에게 동참을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또 서울대에서는 불교종 학생회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캠페인을 이끌어 관심을 모으는 등 갖가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대 불교학생회장 석민철 학생(농경계사학과 4년)은 "이번 캠페인은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사회참여가 부족하다는 일반 학생들의 생각을 깨뜨릴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서울산업대 불교학생회장 김주경 학생(금속공예 3년)은 "불자로서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행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생명나눔실천회는 '기대반 우려반'으로 시작한 대학가 캠페인이 예상외의 성공을 거두자 가을학기에도 대학가 캠페인을 계속 계획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의 실행을 맡았던 박찬주 간사는 "가을학기 캠페인에서는 이번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해 학생들의 참여율을 더욱 높일 생각"이라며 "대학가 캠페인을 계기로 장기기증과 화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녹슬고 갈라진 감사 철제당간 포철서 보존처리

포항제철이 첨단 철 기술을 활용해 계통산 감사의 철제 당간(보물 제56호)을 보존처리하기로 했다. 통일신라 중기에 제작된 길이 15m의 감사 당간은 현존하는 2개의 철제 당간 중 하나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현재 심하게 녹슬고 또 당간의 이음매가 갈라지는 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

이에 따라 지난달 초 감사는 포철에 조사 및 보존을 의뢰했고, 포철은 즉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용접연구팀과 철공구조립팀을 현장에 보내 정밀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당간은 부식으로 인한 훼손이 심각해 보존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포철은 연말까지 3천 5백만 원의 연구비를 들여 당간의 재질과 부식 진행속도 등을 조사해 보존 방법을 찾아낼 방침을 세웠다. 또 문화재청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 훼손 부분에 대한 복원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종욱 기자

뉴스 & 뉴스

장애인을 육사나들이

우리는 선우는 14일 육군사관학교 교정에서 제7회 장애인나들이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 초청된 주몽재활원생과 암사재활원생 등 120명의 장애인들은 육군생도와 사병, 우리는선우 가족 등 310명에 이르는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아 육사 교정을 산책하고 페이스페인팅, 풍선나르기, 박터트리기, 디스코 경연대회 등에 참여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도필선 기자

대북포용정책과 종교인 역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9일, 20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대북포용정책과 종교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남,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스님, 김민하 수석부회장, 송석구 종교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으로 이어졌다. 천미희 기자

하동 청소년수련원 수탁

조계종 복지재단(대표이사 정대)이 경남 하동군이 위탁공고한 하동군청소년수련원을 수탁, 20일 약정을 체결하고 7월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수탁받은 청소년수련원은 총 2만여명의 부지에 정선교육관, 야영장, 운동장, 수련의 숲, 기타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생활관 1백명, 야영장 1천명 등 모두 1천1백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한명우 기자

8사단 신교대 법당 낙성

제8보병 사단 신교대 법당 관음사(주지법사 김희균) 낙성법회가 지난 19일 봉선사 주지 밀운스님을 비롯한 법당건립을 도운 심우회, 대전불자회 등과 부대간부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도필선 기자

"수행환경 훼손 보상하라"

원각사·구미시·주곡공사 '다른 목소리'

전통사찰인 원각사(주지 대해, 구미시 선산을 노상리 159)와 구미시 선산 주곡아파트 건립을 둘러싼 사찰측과 주곡공사, 구미시간의 분쟁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원각사는 지난 3일 "주곡아파트 104동 12층의 확보거리가 16m가 안되는 데다 수십년간 사용해 오던 사찰 우측의 365-14번지 구



원각사와 구미 주곡아파트 주차장이 바로 붙어있어 수행환경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거(溝渠)를 용도폐기하고 주곡택지에 편입시킨 것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원각사측에 따르면 오배수관을 매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구역을 택지에 편입함으로써 뒷산으로 통하는 통로가 차단되어 산불이 발생할 경우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농기계의 출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지사장 김방수)는 "국유지인 구역을 아파트건립에 따라 무상 불허받은 후 다시 일정기간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달부터 시공업체인 영남건설로 하여금 포크

레인을 동원해 구역을 파헤치고 오배수관을 강행하고 있다.

원각사는 아파트 건립과 관련, 2년여 동안 소음과 먼지공해에 시달리고 종교행사 진행에 방해를 받아왔으며 묘사체에 균열이 발생하고 민원해결 문제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는 등 피해를 입어 왔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임주가 시작될 경우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역민원이 제기될 우려도 있어 원각사측은 이래저래 수행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전망이다.

원각사는 6월1일 기자회견 및 신도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미=이윤호 기자

"남북정상회담 성사 기원"

선암사 6월7-9일 경관 정대불사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 및 평화통일 기원 선암사 장경대 불사(千手觀音)를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매일 오후 1시부터 승주 선암사에서 봉행한다. 이번 불사는 6월 12일부터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이를 토대로 남북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원법회로 열린다.

첫날인 6월 7일에는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교구, 8일에는 대전·충남·충북·대구·부

산·경북교구, 9일에는 광주·전남·전북·울산·경남교구 등 교구별로 동참하며 참석자 전원에게는 천수법자(千手梵字) 다라니경 탁본이 주어진다.

선암사에는 현재 모두 26종 835권의 목판이 장경각에 소장돼 있다. 이 경판들은 대방광원각수다라니경 343권, 묘법연화경 259권, 석가여래행적승 62권, 칠광집 50권, 상월대사 시집 20권, 불살생 불광판 1권, 선암사 심진록 2권, 대수구다라니, 2판 등으로 대부분

만일염불결사 6월6일 입제

성남 정토사

'불교 바르게 믿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 정토사(주지 보광)는 운동의 일환으로 6월 6일부터 만일염불결사를 시작한다.

만일염불결사는 만일 즉 27년 5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염불 수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이날 오전 10시 입제식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정토사의 만일염불결사는 2027년 10월 22일까지 계속된다. 1천여 명의 염불 수행자들이 참

여할 이번 결사에는 청화(극성 성륜사 조실) 스님이 증명법사로, 인환(전 동국대 교수) 스님, 무진장(전 조계종 포교원장) 스님, 서돈각(불교진흥원 이사장) 박사, 송석구 동국대 총장 등이 고문으로 참여한다.

보광 스님은 "불교계 갖은 분규로 불자들의 신심이 땅에 떨어졌다"며 "올바른 신행관을 세우기 위해 불교 바르게 믿기 운동을 전개하고, 그 방편으로 염불결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0342)723-9737 오종욱 기자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 사이에 제작된 보물급 문화재이다.

정대불사는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되새기고 그 가르침대로 살았다는 서원을 담아 경판을 머리에 이고 법계도(法界圖)를 따라 도량을 도는 의식이다. 또 장경각에 모셔진 경판이 습기 등으로 훼손되는 것을 막고 경전을 널리 보급하여 불자들에게 신심을 길러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1년에 한차례씩 벌이는 의식을 풀라 햇빛을 보게 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경숙 기자

나눔의집 할머니들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집 원장 해진스님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신일본제철, 미쓰비시 등 미국에 현지법인을 둔 일본 대기업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내기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대표원고로 나선다. 해진스님은 "할머니들이 집단 소송을 내는 목적은 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을 압박해 일본정부로부터 공식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문화의 달이자, 가정의 달이며, 래 보기 드문 수준 있는 불교예술 부처님이 오신 달이기도 했던 5월이 간다.

올해 5월은 여느해 보다 다양한 문화공연들이 펼쳐졌다. 특히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5월의 문화를 진감사하는 기리는 두권의 공연은 불교문화의 향취를 만끽하게 했다.

지난 1일과 2일 국립극장에서 선보인 음악극 '오! 진감'은 우리나라에 차와 베타를 처음 들여와 보급 및 전시킨 진감사의 생애와 사상을 창작음악극이라는 독특한 모습으로 보여주었다. 국립극원 단원들의 빼어난 연기와 무대 장치, 거기에 극을 받쳐주는 장작불교음악이 한데 조화를 이뤄

다만 이같은 공연들이 불교계 자체역량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는 점이 아쉽기는 했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불교를 전하는 방법이 바로 문화의 달을 깨닫게 해주었다. 모두 다 알다시피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한다. 교계도 옮겨져 있는 불교문화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불교예술의 전통을 오늘에 되살리며, 불교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문화의 세기에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21세기 불교의 자리는 더욱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문화의 달 5월을 보내며 다시한번 문화포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절감한다.

문화포교의 힘

선사의 달을 맞아 우리 전통불교예술에 대한 관심을 '새로운 문화'로 끌어냈다. 영산재보존회 스님들과 인간문화재 이매방, 이춘희씨 등 대가들이 펼쳐낸 이 공연은 우리 문화의 원류를 불교예술이 갖는 생명력을 보여준 무대였다.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 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 집을 다스림), 처국(治國: 나라를 다스림), 평천하(平天下: 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 건강과 장수), 둘째 부(富: 부와 귀), 셋째 강녕(康寧: 편안함), 넷째 유호덕(好好德: 덕을 좋아함), 다섯째 고종명(考終命: 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도 (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길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술호소정액(松素精液)」·「술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까)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퍼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 격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구입문의: (053)655-2227 (011)808-8880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대구여래원

효성양방 · 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말기 암환자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술!!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 1천명 수용의 식당, 900명의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설과 영안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효성양방 · 한방병원 부분전경

말기 암환자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술!!

진보의학 보살은 하루에 밤낮으로 중생의 고난을 구해주시는 천수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온갖 죄업이 소멸하는 대비주(大悲咒: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의 준말)를 천번 읽고 무릎이 썩고 고름이 나도 하루3천배를 하면서 3년간 기도정진 하니,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침과 약초를 받은 후에 인연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병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 암환자도 이들을 치료하니 본인이 알 정도로 진통도 없어지고 음식도 먹고 잠도 자게 되어 일주일 치료한 후에 완치된 기적도 있습니다.

이밖에 본 병원에서 말기 암환자를 무료치료 하오니, 전국의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단, 완치된 분은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시설확장과 대작불사에 거금보시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여야 합니다.)

의 료 인 효성양방 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불로화정 본포